

와 목에는 뚜렷한三道가 보이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서 裙衣와 腰帶가 있으며 袂는 衣褶은 結跏한 발 위를 덮어 앞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臺座는 橢圓形으로 仰伏單蓮이 새겨져 있다. 이 佛龕의 後壁彫刻에 依하면 主尊佛은 毘盧舍那佛로서 左右脇侍佛은 上記한 兩佛像과 同一한 姿勢와 手印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혹시 盜失된 것은 本尊이 아닐까 한다.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實測値는 cm) 總高 十六·五 座高 十三·二 肩幅 六 顔幅 二·五 頭高 五 臺座 幅八·五.

〔註〕鄭永鎬「智異山 泉隱寺의 金銅佛龕」本誌 第一卷 第四號 參照.

考古美術 卍—

◎ 澗松 全盛弼先生 二周忌

陰 十二月二十日(二月三日) 澗松全盛弼先生의 二周忌를 맞이해서 同人一同은 故人的 遺德을 追慕하고 이날을 紀念하기 爲하여 城北洞 故人的 博物館 後園에 六·二五以來로 倒廢되어있던 忠北 槐山郡 七星面 外沙里 浮屠一基를 再建하였다. 一月三十一日 着工해서 二月三日(大忌當日)에 竣工했다. 當日은 金岸基, 金斗鍾, 李相佰博士等 文化財保存委員여러분 趙明基教授 鄭文化財管理局長과 同人一同 및 各新聞社 關係者들이 參席하여 同行事를 紀念했다.

◎ 一九六四年度 第一次文化財委總會

一月二十二日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金岸基委員長 司會로 開催되었다.

出席은 金載元, 李敏載 兩副委員 一分委의 李相佰 金斗鍾 金元龍 黃壽永.

第二分委의 任哲宰 박헌봉. 石宙善. 第三分委의 朴萬奎 崔基哲 鄭文基 孫致武外

尹文教次官 鄭局長 李課長 崔泳善專門委員.

一、一九六三年度業績報告(分委別) (油印物)

一、一九六四年度文化財保存事業計劃(別途說明)

一、其他事項으로서 金斗鍾 李相佰委員의 提議에 의하여 無形文化財指定을 推進할 것과 그 國內外 普及 指導에 關하여 公報部에 建議할 것을 決議하다.

◎ 文化財委第一分委第一次會議

一月二十二日 總會에 이어서 開催되었는 바 案件은 다음과 같다.

1、洗兵館(寶二九三號) 補修(二柱門建立과 壇場工事 등)…… 保留한(委員調査後再議)

2、民俗資料指定……「河回탈 및 屏山탈」計 十一面을 國寶指定키로 決議하였다. (第二分委員과 同李杜鉉專門委員合席) 이들은 展示와 保存策을 위하여 中央에 出品指示키로 하다.

3、建大申請의 發掘許可(南原雲峰面 尊향리 산 34, 37, 39)…… 否決.

益山出土의 龍氏作 盤龍鏡

梅原末治

— 第五卷 第三號 通卷四十四號 —

韓半島의 古代遺跡에서는 北方 漢의 郡縣의 古墓에서의 相當數의 古鏡의 遺存을 除外하면 漢江以南에서는 從來의 出土例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考古美術」創刊號에 紹介된 한 鏡은 이 點에서 確實한 한 新知見일뿐 아니라 鏡自體에도 注目할만한 點이 있다. 그런데 그 記錄에는 破損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全北 益山郡 金馬面 蓮洞 胎峯寺 敷地에서 古瓦類와 함께 出土된 由來를 說面하여 六朝의 遺品으로 보고 있고 近刊의 「金石遺文」에는 百濟 金文의 하나로서 殘缺된 銘의 文字가 著錄되어 있다. 그러나 出土後 얼마 안되어 黃壽永氏가 보내준 寫眞이나 拓本에 依하면 鏡은 確實히 後漢代 前半에 中國에서 鑄造된 所謂 盤龍鏡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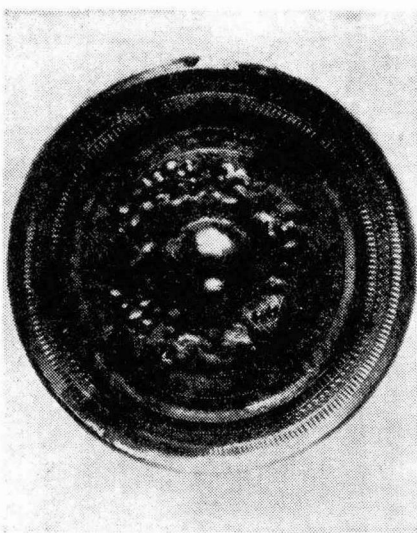
이제 寫眞에 依하면 鏡은 內區의 半과 周緣의 一部를 缺하고 있는데 面徑 一四·三cm가 되는 鏡體는 半球形에 가까운 鈕를 中心으로 鑲은 主

紋이 표시되었으며 銘帶가 이를 둘러싸서 一段 높은 平緣의 外區가 되고 漢鏡으로서 通有한 式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殘存한 內區의 圖像은 所謂 盤龍——實은 龍과 虎——가 相對하는 모양을 紐를 사이에 두고 構圖한 것이다.

이런 種類의 鏡은 中國에서는 일찍이 盤龍鏡으로 알려졌고 遺存例가 적지 않은 것으로 日本 古式古墳에서도 發見되어 크기가 비슷한 것이 數面 있다. 그런데 이러한 數 많은 盤龍鏡中에서 著名한 古鏡 蒐集家인 日本의 故守屋孝藏氏의 遺品 가운데 이 鏡과 같은 范으로 鑄造된 것이 있음은 興味있는 일이다. 兩者가 同范의 所鑄라는 事實은 黃氏 送致의 鏡拓本을 守屋氏의 鏡 拓本과 接쳐 본 結果 細部의 線까지 全然 一致됨으로써 確認되었다. 따라서 出土鏡의 完形은 이러한 事實을 通하여 알 수 있다. 本銘의 全文은 다음과 같고 鏡은 龍氏의 作品인 것이다.

龍氏作竟四夷服。多賀君家人民息。  
胡美殄滅天下服。風雨時節五  
官位尊顯家祿食。長保二親樂無已

文字의 ○票한 것이 破鏡에 殘存하는 部分이다. 이 銘文에 「時節五」 밑에 缺字된 「穀孰」의 二字를 加하면 이야말로 漢盛時의 鏡銘 文體인 正確한 七字句가 되는 것이다. 이 點에서 同式鏡中에서는 時代가 올라가는 鑄造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



면 이러한 中國鏡이 옛날 百濟의 故地에서 出土되었다는 것은 當然히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扶餘의 博物館에 있는 이 鏡에 對하여 처음으로 洪思俊氏의 所見은

아마 古瓦當과 伴出되었다는 事實과 出土地가 百濟의 故地라는 事實에 重點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 古鏡이 破碎, 殘缺이라는 點이라는 가單純히 古瓦와 함께 出土되었고 해서 簡單히 時代가 推定되는 것은 아니다. 即 鏡이 오래서 紀元 二世紀로 올라가는 以上 이 境遇 그것이 來傳된 後 四、五百年이나 傳世되다가 그 後에 埋藏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事緣이 있어 그것이 包藏되었던 오랜 遺蹟이 破壞되어 副葬品의 하나였던 鏡이 다시 埋沒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盤龍鏡이 日本의 古式古墳에 적지 않게 副葬되어 있는 事實과 아울러 益山에서의 이 鏡의 出土는 古代 中國文化가 波及된 時代를 推定할 수 있는 새로운 資料임이 짐작되는 바이다.

參考로 添加하지만 「古文化」 創刊號에 所揭된 金良善氏의 「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의 祖形考定의 問題」의 附圖中 南鮮出土의 古鏡이 二面 採錄되어 있다. 金氏는 이것을 南鮮 古墳에서 드물게 發見되는 日本의 仿製鏡과 同一視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本 益山出土鏡과 같이 南鮮에서는 드문 古鏡의 新資料임이 推測된다. 寫眞이 鮮明하지 않으나 二面中 金海出土라고 傳하는 內行六弧紋鏡은 簡單한 圖紋인 것이 對하여 慶州出土라고 하는 다른 一面의 神獸鏡은 틀림없이 半圓方形 帶 神獸鏡으로 外區에 銘文이 있는 式으로 이것은 漢末에서 六朝初에 걸쳐 中國 江南에서 많이 만드렸던 것이 인정된다. 그리고 實物에 依하면 外區의 銘文도 充分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金氏의 이 新資料에 對한 發表가 있었으면 좋겠다(秦弘燮譯).

### 高靈 古衙洞 壁畫古墳 略報

金 元 龍

昨年 그 存在가 알려진 古衙洞盜掘壁畫古墳에 對해서는 一九六三年 一月五日字 한국일보에 「高靈壁畫古墳의 歷史的意義」라는 小文으로서